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금명자, 이장호

서울대 심리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상담에 대한 기대 연구들을 기대 차원, 기대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 상담과정에 따른 기대의 변화 및 연구들의 제한성 별로 개관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다중적인 것으로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 상담성파에 대한 기대,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및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대한 기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대에는 더 구체적인 기대들이 포함된다. 기대가 미치는 영향은 조력 추구행동과 초기 상담과정 및 상담 성과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할 것인지, 상담을 한다면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야 할런지 등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는 보다 전문교육배경을 가진 상담자를 요구하며,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상담에 대한 기대가 초기 상담과정에서 만족되지 않았을 때 조기종료될 것이라는 예언을 확인하려는 연구는 많았지만 일관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상담 성과에 미치는 기대의 효과를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추적한 연구는 없었으며, 다만 상담이 지속됨에 따라 기대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는 그 상담의 성과와 관련이 있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라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나 연구 대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애매모호한 용어 정의, 부적절한 분석 방법의 사용,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한 도구의 사용 등 연구방법의 제한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담자의 기대를 다룬 체계적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단순한 기술적 자료의 수집이 우선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Titchner(1909)는 기대를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인지가 매개된 예비적 셋트(preparatory set)나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인지적 기대나 예비적 셋트는 여러 이론들의 중심 개념으로서 Kelly(1955)의 역할구념이론,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이론, Heider(1968)의 balance이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Tolman(1932)의 인지행동이론, Rotter의 사회학습이론과 같은 학습이론에서도, 어떤 대상이 자기의 행동에 의해 나타날 성과에 걸었던 기대를

강화하므로써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계속 이어지는 행동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기대를 안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변화시키므로써 행동변화도 꾀할 수 있게 한다.

Frank(1961)는 상담이 서로 일치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행하려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인지적 연습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는 상담이 일대일의 사회학습관계라는 개념에 근거한다(Fustad, 1953; Robinson, 195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 장면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주요 결정인자 중 하나가 된다. 내담자들은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자기와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상담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대'이다(Patterson, 1958; Strong, 1968; Tinsley & Harris, 1976). 이러한 내담자의 기대는 그들의 의사소통과정과 상담효과를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Apfelbaum, 1958; Frank, 1968; Goldstein, 1962; Goldstein, Heller, & Sechrest, 1966)을 통해 주장되어 왔다. 또한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 성과 뿐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 올 것인가를 결정하는데(Rust & David, 1961; Snyder, Hill, & Derksen, 1972; Tinsley, Brown, Aubin, & Lucek, 1984; Ziemelis, 1974), 1회면접 후에 그 상담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Heilbrum, 1970, 1972)에 중요한 결정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지적 셋트로서의 기대는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며(Ricker-ovsiankina et al., 1971; Tracey & Durdon, 1988), 상담이란 이런 기대의 수정과정이라고 기술되기도 한다(Goldstein, 1962; Tracey, Heok, & Liohtenberg, 1981).

본 개관논문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상담에 대한 기대를 다룬 수많은 연구들로 부터 첫째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으며, 둘째 그러한 기대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셋째 상담과정에 따라 기대가 변화하는지, 넷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대 연구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상담에 대한 기대 차원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내담자의 주요 기대 차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초기 개관연구인 Goldstein(1962)의 연구는 심리치료와 관련된 기대를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예후에 대한 기대(prognostic expectation)로 상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참가자의 역할 기대(role expectation)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관계에서 드러낼 행동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Bordin(1955), Patterson(1958), Tinsley와 Harris(1976)는 내담자들이 상담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상담의 본질(nature)과 참가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고 하였다. Gladstein(1969)의 연구에 의해서 내담자 기대는 다양하면서도 다차원적임이 지지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확인된 내담자의 기대는 예후적 기대, 참가자 역할기대 및 상담의 구체적 면들에 대한 기대들이다.

예후에 대한 기대, 즉 치료가 자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심리치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Frank(1959)는 "치료이득에 대한 환자의 기대는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지속적이며 심오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떤 형태의 심리치료라도 환자에게 좋아질 것이라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치료의 성공적 효과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Krause(1967)는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은 과정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평가는 치료에 참가하겠다는

치료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dnar (1970)는 치료의 성공은 어떤 상담과정의 결과에 의해서 보다는 상담방법과는 상관없는 것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하여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기대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치료이득에 대한 기대는 의학이나 약리학의 위약효과(placebo effect)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경험적으로 탐색되었다. Kadzin과 Wilcoxon(1976)은 치료적 변화에 대해 더욱 신뢰롭고 더 높은 기대를 유발하는 처치가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Fancher & Gutin, 1971 ; Helweg & Gaines, 1977 ; Holen & Kinsey, 1975 ; Wollershein, Mcfall, Hamilton, Nickey, & Bordewick, 1980)은 행동치료, 정신분석, 합리적 정서치료 등 대안적 치료들이 주는 기대를 비교하므로써 예후에 대한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Wollershein, MoFall, Hamilton, Nickey 및 Bordewick(1980), Kadzin과 Krouse(1983)는 치료접근 방법 그 자체가 기대를 다르게 조성하기 보다는 한가지 치료방법이라도 치료원리와 치료절차에 따라 기대가 다르게 조성된다고 하였다. Kadzin과 Krouse(1983)는 3가지 실험을 통해 치료원리(rational)를 전달할 때가 전달하지 않을 때 보다, 치료원리가 소개되더라도 성공사례를 삽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더 신뢰롭고 가치로운 치료로 평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료의 초점이 어느 한 면만 강조하기 보다는 폭넓은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기대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치료가 소개되는 방법이 기대조성에 기여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예후에 대한 기대를 초점으로 한 연구들은 어떤 성과기대가 있는가 하는 구체적 내용 보다는 치료마다 성과기대가 다른가, 무엇이 성과기대를 형성하는가, 성과기대가 과연 좋은 성과를 예언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대연구는 치료자 역할에 대한 기

대와 관련지어 다루어졌으며 이들에 의해 보고된 역할기대 차원은 다양하다. Apfelbaum(1958)은 대학 정신과병동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자의 태도와 면담행동에 대해 치료전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Q-sort로 평정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나타난 군집은 정보를 주고, 보호해주며, 비판이나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안내해주는 양육적(nurturant) 치료자,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책임성을 요구하는 비판적(critical) 치료자, 그리고 잘 적응되어 있으며, 보호적이지는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수용적으로 경청하는 모델(model)로서의 치료자등 세가지였다. Begley와 Lieberman(1970)은 미국의 정신건강병원의 환자들에게 5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실시하고 군집분석을 하여 2개의 군집을 고집어 내었다. 하나는 지시적이면서도 온화한 상담자를 기대하는 군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다 소극적이면서 객관적인 상담자를 기대하는 군집이었다.

Heine와 Trosman(1960)은 심리치료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였는바 안내형 모델(guidance model)과 협조형 모델(collaboration model)이 그것이다. Heine 등(1960)은 외래 환자들은 진단정보나 충고를 주고 투약명령을 내리는 안내형 모델의 치료자가 적절하다고 기대하나, 치료자들 자신들은 진단이나 정신약리학을 도구로 하는 치료팀으로서가 아닌 덜 지시적인 협조형모델로 치료관계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Berzin(1971)의 연구에서는 승인추구(approval-seeking), 조언추구(advice-seeking), 경청자 추구(audience-seeking) 및 관계추구(relationship-seeking)등 4가지 기대로 구분하였으며, Tracey와 Dundon(1988)은 이를 각각 양육적, 비판적, 모델적 및 협동적(cooperation) 기대로 명명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Apfelbaum (1958)의 3가지 구분에 관계추구 혹은 협동적 기대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내담자가 자율적이며

상담자와 동등하여 상담을 하나의 협동작업으로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Loor(1965)는 43개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개인상담을 받고 있는 523명의 환자에게 상담자 행동과 태도에 대한 6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실시하여 기대차원을 확인하려 하였다. 65개의 항목은 이해, 수용, 지시성, 양육성, 평등주의, 독립성 격려, 비판적 초연함(critical detachment), 혐오적 거절등 가설화된 8개의 군집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군집은 5개로 이해(understanding), 수용(accepting), 권위주의(authoritarian), 독립성 격려(independence encouraging) 및 비판적-혐오감(critical-hostile)이었으며, 세가지 군집은 나머지 5개와 변별되지 않는 것으로 지시성, 양육성은 권위주의적인 특성에 묶였고 비판적 초연함과 혐오적 거절이 한개의 군집으로 묶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Apfelbaum(1958)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는 참가자 역할 특히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를 주로 다루었다. Tinsley, Workman 및 Kass(1980)는 기존의 연구들이 첫째, 상담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내담자들의 기대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둘째, 사용한 척도의 신뢰성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셋째 적절치 못한 통계적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상담자의 행동과 태도외에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 상담자의 특성, 상담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들을 첨가하여 내담자들의 기대를 평가하는 53문항의 질문지(EAC;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를 발달시켰다. 내담자 태도와 행동에는 동기성(motivation), 개방성(openness), 책임성(responsibility)등이 포함되며,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는 수용성(acceptance), 직면성(confrontation), 지시성(directiveness), 공감성(empathy), 솔직성(genuineness), 양육성(nurturance), 자기공개성(self disclosure)이

포함된다. 상담자 특성에는 호감성(attractiveness), 전문성(expertise), 인내성(tolerance), 진실성(trustworthiness)이, 상담과정 및 성과에는 구체성(concreteness), 즉시성(immediacy), 성과(outcome)가 각각 포함된다. 이렇듯 EAC는 모두 17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련의 연구들(Tinsley et al., 1980; Yuen & Tinsley, 1981)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Tinsley등(1980)은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분석 방법들이 대부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바, 이 방법은 피험자 한 사람이 어떤 한 군집에 모두 변량을 다 주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간의 관계(예, 유형이나 중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도 어떤 기대들이 존재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요인분석은 기대들에 변량이 나누어져 주어지기 때문에 기대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Tinsley등(1980)은 EAC를 446명의 피험자에게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1은 개인적 참여(personal commitment)로,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된 기대들이다. 내담자 자신들이 상담에 있어 반응적이고 개방되어 있으며 동기화되어 있고, 호감적 상담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구체적이며 즉각적인 상담을 경험할 것이며,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들이 이에 포함된다. 요인 2는 촉진적 조건(facilitative conditions)으로 Rogers(1967)등이 성격변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 충분조건으로 주장했던 것들이다. 상담자는 솔직하고 신뢰로우며 수용적이고 인내하며, 내담자를 직면케하고, 상담은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요인 3은 전문성(expertness)으로, 경험 많고 전문적인 상담자를 기대하는 것이며 지시성, 공감성, 전문성이 이에 포함된다. 공감성이 전문성 요인에 포함된다는 점은 내담자들의 기대가 전문상담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공감성이란 Rogers가 주장하는 촉진적 조건의 대표적인 것이므로 제 2요인에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내담자들은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요인 4는 양육적인 태도(nurturant)로, 상담자로 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수용성, 자기-공개, 양육성, 호감성이 이에 포함된다. Tracey등(1980)은 요인1을 내담자가 상담에 기꺼이 관여하는 요인이라 하여 개인적 참여 요인으로 명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담자에 대한 기대를 제외한 여타의 기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요인3에서 4까지는 모두 상담자의 역할, 기능 및 자질에 대한 기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에서 나타난 기대의 종류는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Bordin, 1955; Patterson, 1958; Tinsley et al., 1980),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Frank, 1973; Goldstein, 1962; Shapiro & Morris, 1978; Tinsley et al., 1980; Wilkens, 1973, 1986),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Apfelbaum, 1958등 다수),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Tinsley et al., 1980), 내담자-상담자 관계에 대한 기대(Berzin, 1971; Tracey & Dundon, 1988)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더 구체적인 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상담에 대한 기대는 적어도 세가지 방향으로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갖고 있는 기대에 따라 조력 추구(helping-seeking)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갖고 있는 기대가 면접, 특히 첫면접에서 만족되지 않았을 때, 조기종결(premature termination)이 나타나며, 셋째는 대상을 찾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과정이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 상담에 대한 기대가 조력-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Tinsley, Aubin 및 Brown(1982)은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도움을 요구하는 문제의 본질이며, 둘째는 도움을 줄 사람들에 대한 특성이며, 셋째는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잠재적 피조력자(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유형이 캠퍼스의 여러 조력자들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효시는 Warmen(1960, 1961)으로 학생들에게 상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유형에 대한 신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소에서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문제는 직업선택의 문제이고, 대학생들이나 적응에 관한 것은 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ust와 Davie(1961)는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상담자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Carney, Savitz(1980)는 학생들이 개인적-사회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친구와 친척을 찾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Parham과 Tinsley(1980), Strong, Hendel 및 Bratton(197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잠재적 내담자들은 사회적-정서적 문제는 상담자보다는 쉽게 마주치는 지지망(support network), 예를 들면 친구, 부모, 친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유형이 상담을 요청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잠재적 조력자들의 특성에 대한 기대도 상담 요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내담자들은 자기들이

만나게 될 조력자들에 대한 명칭(title)이나 전문훈련 정도 등 그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기대한다. Strong, Hendel 및 Bratton(1971)은 상담자와 조언자(advisor)는 서로 비슷하게 지각되지만 이들은 정신과 의사와는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상담자가 정신과 의사보다는 더 우호적이며 예절바르며 온화하여 훨씬 편안한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정신과 의사는 더 지적이며 결단력이 있으며 분석적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교육적, 직업적문제는 상담자에게, 개인적 문제는 정신과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Gelso와 Karl(1974)은 Strong등(1971)이 '상담자'란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연구한 점을 지적하면서 상담자를 상담심리학자, 대학상담자, 고등학교상담자등 세 종류로 구분하여 조언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의사와 함께 그 기대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이들 여섯종류의 조력자들에 대해 각기 다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학자는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자, 조언자보다는 좀 가볍게(casual) 느껴지며, 고등학교 상담자와 대학상담자보다는 아는게 많고 분석적이라고 기대하였다. Gelso, Brooks 및 Karl(1975)은 상담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동일하게 개인 문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력자로 지각되었고, 이는 임상심리학자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조력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Getsinger와 Garfield(1974)는 상담자와 생활지도상담자(guidance counselor)가 상담심리학자보다는 직업선택의 문제에 더 적합하며, 나머지 문제에는 상담심리학자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ensen과 Magoon(1974), Rust와 Davie(1961), 그리고 Snyder, Hill 및 Derken(1972)은 개인·사회적 문제에는 친구, 친한 친척, 교수(faculty advisor)들이 더 선호되는 조

력자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유형과 조력자 특성에 따른 기대가 짝을 이루어 조력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Christensen과 Magoon(1974), Tinsley와 Be-nton(1978), Parham과 Tinsley(1980)등의 연구에 의하면 가까운 친구와 동료가 좋은 조력자로 나타났다. Christensen과 Magoon(1974)는 과거에 다양한 상담 경험이 있었던 피험자들에게 가설적 직업문제와 정서적 문제에 대한 12명의 잠재적 조력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청하고 싶은지를 서열짓게 하였다. 상담자들은 이 두가지 문제에 있어 12명 중 중간에 접하였고 학교친구와 교수(faculty advisor)가 이 두가지 문제 모두에서 먼저 선택되었다. Parham과 Tinsley(1980)의 연구는 Tinsley 등(1980)이 상담과 가장 관련있다고 밝힌 17가지 기대차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정서적 문제로 친구나 상담자를 만날때 거는 기대를 탐색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한가지 문제에 대해 두 종류의 조력자를 비교한 것이지만 구체적 문제를 지적하여 17가지 차원에 걸쳐 비교 하였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은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전문성과 지시성도 없으나 솔직하고 수용성이 높으며 직면케하는 특성이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개인적-정서적 문제로 친구나 친지를 우선적으로 찾게될 때는 전문성보다는 수용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아닌 상담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담자에게 공감능력과 전문성, 지시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들의 확장으로 Tinsley, Brown, Aubin 및 Lucek(1984)는 캠퍼스에 있는 7가지 조력자들-대학 상담자(college counselor), 조

언자(advisor), 진로지도상담자(Career counselor), 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동료상담자, 정신과 의사-에 대한 내담자들이 거는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였다. 대개의 개인적 문제는 대학상담자, 조언자, 진로지도상담자보다는 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동료상담자, 정신과의사들에게 조력을 구하며, 상담심리학자는 구체성과 즉시성이 뛰어나며 자기-공개를 덜하고 지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상담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을 때 개방성과 동기성의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다 강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간의 기대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들은 개인적 문제에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종류의 조력자들간에 차별적 기대가 있다는 연구외에 조력 추구경향성을 예언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자를 찾는자와 그렇지 않은자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Tinsley와 Harris(1978), Tinsley와 Benton(1980)은 전문상담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 보다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적게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Tinsley와 Harris(1976)는 287명의 상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상담에 대한 기대를 살폈다. 학생들은 상담자가 전문적이고 솔직하며, 신뢰로우며 수용적임을 가장 강하게 기대하였으나 상담자가 지시적이며, 자신이 이해받는 것 및 성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기대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Tinsley와 Benton(1980)은 상담의 기대와 선호를 동시에 알아보았는데, 이들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성과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은 상담자가 자기를 도와주기 원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줄런지에는 회의적이라고 해석되었다. Strong, Hendel 및 Bratton(1971), Apo-

stal(1968)등의 연구에서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 보다 자신만만한 것이며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적 상담자를 찾지 않는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Parham과 Tinsley(1980)는 학생들이 친구와 상담자에 대해 매우 다른 기대를 갖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은 학생들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도움 받기를 좋아하며 이러한 도움이 불가능할때만 전문상담자를 찾는것으로 제안하였다. Snyder, Hill 및 Derkson(1972)은 학생들이 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경험적 연구인 Gelso와 McKenzie(1973)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두(oral)나 서식으로 주었더니 상담자 역할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게 변화된 지각이 상담을 요청하는 용의도, 즉 조력-추구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학생들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상담에 적합한 것인가, 상담소에 가서 만나는 전문조력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성과를 얻게 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기대가 기여함을 여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조력추구 행동을 기대와 연결시켜 다룬 많은 연구들의 결과는 어떤 문제가 어느 전문가에게 적합한지, 상담하는것 자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개인적 문제는 보다 전문교육 배경을 가진 상담자를 요구하며, 전문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2)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지속에 미치는 영향

Kelly(1955)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치료관계의 본질과 치료자역할에 대해 이미 개인적으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적어도 치료초기에서 만이라도 이러한 내담자의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는 혼란이나 실망을 하여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문제 유형과 기대간의 관계를 다룬 Yanico(1985)의 연구, 피험자와 상담자의 성별과 기대간의 관계를 다룬 Hardin과 Subich(1985)의 연구들도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기대와 상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담과정과 성과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상담과정에 미치는 기대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상담을 시작하여 지속하고 있는 내담자와 그렇지 않은 내담자간의 사전 기대를 비교하는 것이다. 조기종료는 대학 상담센터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Betz와 Shullman(1979)은 조기종료가 상담서비스의 비효과적 수급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했다. Duehm과 Proctor(1977)는 조기종료가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상담자로서의 능력감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사전 기대와 조기 종료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나타난 결과도 일정치 않다. Overall과 Aronson(1963)은 상담자에게 지지적이면서도 지시적인 면을 높게 기대했을 때 탈락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자 자신은 내담자들과는 달리 덜 지시적이며 덜 지지적인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Borghi(1968)는 상담자로부터 많은 충고를 기대했던 내담자들이 조기종료했다고 하였으며, Sandler(1975)도 내담자들이 치료자에게 조언과 면담을 이끌어가는 책임감을 기대했을 때 조기종료가 생긴다고 하였다. Sandler(1975)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97명의 내담자들에게 접수면접에 앞서 초기 상담기대를 측정하고 3회 후, 12회 후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를 확인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한 척도는 Berzin(1971)이 개발한 심리치료 기대 척도(Psychotherapy Expectancy Inventory ; PEI)로 인정추구, 조언추구, 경청자추구 및 관계추구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조기종료자는 상담자와 초기 비유사성이 높았으며, 특히 조언추구와 경청자추구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세 연구는 대체로 내담자들이 상담자가 지시적이며 조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나 실제로 상담과정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Goin등 (1965)은 충고에 대한 기대의 일치도와 상담길이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Feister(1974, 1977), Vail(1974)도 이를 지지했으며 Horenstein(1974)도 실제 내담자를 사용하여 치료기간, 치료저항, 성과등을 알아보았지만 기대의 일치성 여부와 조기탈락 간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Horenstein(1974)은 상담에 대한 기대일치도와 이들 변인들이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있을 것으로 예언하였으나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Hardin, Subich 및 Holvey(1988)는 내담자들이 호소한 문제유형에 따라 상담기간에 대한 기대가 다름을 인식하고 직업문제와 개인문제를 조기종료와 관련지어 연구하였으나 역시 기대와 조기종료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얻지 못하였다.

Horenstein(1974), Horenstein과 Houston(1976)은 기대와 성과간에는 곡선(curvilinear)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기대가 많이 일치했다 하여 상담에 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초기접촉 후에 탈락한 피험자들은 기대의 일치도가 최소였지만 두번 만난 다음에 탈락한 피험자들은 일치도가 최대였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Clemes와 D'Andrea(1965)도 성공적 심리치료에 필요한 이상적 수준의 기대일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대의 일치가 조기종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내담자 문제와 같은 다른 변인들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치 않다. Hardin등(1988)은 자신들의 연구를 비롯한 기대와 조기종료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그 결과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로 조기종료의 정의 문제, 기대와 선호간의 차이 및 기대를 측정했던 도구의 문제점 등을 들고 있다.

3)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성파에 미치는 영향

상담에 있어 역할 기대가 상담성파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기대가 조력자 선택과 상담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담의 과정이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Tinsley, Bowman, & Ray, 1988). 실제로 Douherty (1973), Gulas(1974)의 연구에서 기대가 일치할수록 더 많은 치료 증진(improvement)을 보였다. 역할 기대와 예후기대 각각에 대한 치료 증진과의 관계를 알아본 Gulas(1974)는 역할 기대가 일치할수록 책임감, 정서적 안정성, 사회성 척도에서 더 많은 증진이 나타났고 치료자의 평가에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예후에 대한 기대가 일치할수록 책임감, 정서적 안정성에서 더 많은 증진을 보였다고 하였다. Gulas는 이러한 결과는 기대의 일치가 치료관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Clemes와 D'Andrea(1965)는 내담자가 지시적인 치료자를 기대하였지만 덜 구조화되고 덜 지시적인 치료자를 만나 그 기대한 바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고 하여 상담과정에 미치는 기대의 효과를 예시하였다.

그러나 Volsky, Magoon, Norman 및 Hoyt (1965)는 상담자, 내담자의 역할 기대가 성과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으며 Horen-

stein(1974)도 이를 지지하였다. 내담자 자신과 치료자에 의해서 평가된 치료성파는 기대의 일치도와 상관성이 없었으며 이는 기대일치도와 성과가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 자료를 가지고 Horenstein은 둘간의 관계에 대해 포물선 경향성을 제시하였는 바, 기대의 불일치가 치료의 실패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대의 일치가 치료의 성공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크다고 하였다.

상담의 기대차원을 다룬 절에서 언급하였지만 상담성과와 관계지어 주로 연구된 기대는 예후에 대한 기대, 즉 치료이득에 대한 기대이다. Bednar(1970)에 따르면 치료증진은 각각의 치료체계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받게 될 전문적 치료에 의해 꼭 낮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의해 생긴다고 하였다. 치료에 대한 기대 효과를 증명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위약, 세뇌, 마술, 종교적 신비로운 회복에 대한 회고적 설명에 기초한다. 물론 경험적 탐색에 의해 증명되어 오기도 했다. 이들 연구들에서 치료이득에 대한 기대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취하게 될 이득이 얼마만큼인가를 숙고하면서 치료상황에 접근하는 태도로 다루었거나, 자기가 노출된 치료절차의 효과에 대한 지시문을 전달받아 실험적으로 유도된 상태로 다루어졌다. 기대를 내담자의 특성으로 다룬 연구는 기대와 증진간의 상관적 통계자료를 소개하여, 기대가 치료증진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Goldstein (1960a), Goldstein과 Shipman(1961)은 기대와 증진(improvement)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Goldstein(1960b)은 증명할 수 없었다. 실험적으로 유도된 상태로서 기대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이 이득이 높거나 낮은 기대를 형성하게끔 지시문을 읽히거나 들려주고

혹은 보여주므로써 조작한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당되었다. 이때 지시는 독립변인이 되고 집단간에 나타나는 치료성과, 즉 종속변인간의 차이는 피험자의 기대에 의한 것이 된다. 앞에서 소개했던 Kazdin과 Krause(1983)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Krause, Fitzsimmon 및 Wolf(1969), MoGylynn, Mealiea 및 Nawas(1969)는 이를 지지하였으나 Krause(1968), Bedner와 Parker(1969)는 이들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

Tracey와 Durdon(1968)은 기대의 일치도 여부가 긍정적인 성과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없으며 단지 초기의 치료과정 설정에만 관계 있다고 주장 하였다.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상담에 대한 기대는 변화하며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기대가 일치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상담과정에 따른 기대의 변화

Goldstein(1962), Lennard와 Bernstein(1960) 등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내담자의 역할 기대의 수정과정으로 기술하였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해야하는 역할에 관련하여 그들간에 일어나는 협상과정(negotiation process)이라고 가정한다.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도 변화하지 않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의 행동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는 내담자들의 행동이란 역할기대의 함수이며 그 역할 기대와 일관되는 과거의 경직된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란 내담자의 역할기대가 보다 현실적이고 환경에 반응하는 융통성있는 것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과정이라(Tracey, 1986)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대의 변화란 상담관계 그 자체에서의 변화를 통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즉 상담관계가 변화의 매개체임을 가정하고 있다(Cashdan, 1973; Greenson, 1967; Kell & Mueller, 1966).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래야 된다는 비합리적인 역할기대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이 감소되면 내담자들은 이러한 학습을 다른 관계에도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에 있어서 기대에 대한 이러한 가정을 세워 볼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역할 기대는 무엇이며, 그 기대가 상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치료에서는 그 기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터전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을 고집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역할 기대 연구는 상담에 앞서 그 상담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거나 1회기 상담에서 역할 기대를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치료과정 중에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Heppner & Heesacker, 1983). Sandler(1975)는 대학 상담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97명의 내담자에게서 치료전에 가졌던 기대, 3회 치료후의 기대, 12회 치료 후의 기대를 측정하여 치료자가 상담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비교 하였다. 특히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기대의 유사성과 조기종결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도 살펴보았다. 결과, 조기종결자는 초기 비유사성이 높았으며 횡수가 거듭됨에 따라 이 비유사성 정도는 감소하였다. 같은 맥락의 연구로 Cundick(1963), Gulas(1974)는 치료가 진행될 수록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 기대가 점점 일치하게 된다고 하였다. Gladstein(1969)은 상담경험이 애초에 가졌던 내담자들의 기대를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 전후로 기대를 비교하였더니 상담자가 기대한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결국 상담자의 기대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세 연구는 기

대가 변화하되 상담자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였다.

Ricers-Ovsiankina 등(1971)은 이전의 연구들이 발견한 역할 기대의 세가지 차원들-양육적, 비판적, 모델적-을 이용하여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폈다. 결과,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의존성이 높은 기대에서 의존성이 낮은 기대쪽으로 변화한다는 발달적 틀을 제시하였다. 즉 상담자로부터 돌봄, 격려, 위안 등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데(nurturant)서 스스로 자신을 도와가는 치료자를 모델로 보는 기대(model)쪽으로 변화해 감을 주장하였다. Tracey와 Dundon(1988)은 자신들이 제안한 제 4의 기대인 내담자가 더욱 자율적이고 상담자와 동등해지는 기대인 협동적 기대(cooperative expectation)를 포함하여 그 변화를 살폈다. 즉 이들은 Berzin(1971)이 승인추구(approval-seeking), 조언추구(advice-seeking), 청취추구(audience-seeking)등 (1971)의 양육적, 비판적, 모델적 및 협동적 기대와 각각 대응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상담의 주요 단계인 처음, 중간, 마지막회기(session)에서 (Strong & Claiborn, 1982; Tracey & Ray, 1984) 각각의 기대들을 표집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첫회기와 중간회기사이에는 대부분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공적 성과를 거둔 집단은 승인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치료 중기까지 증가하다가 종료시에 감소하였으며 비성공적 집단은 중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종료시에 증가하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또 성공적 성과를 거둔 집단은 관계와 청취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중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수준을 종료시까지 유지하였으나 비성공적 집단은 회기에 따른 차이 없이 항상 일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치료동맹이나 현실적 유대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성공적

성과를 얻은 내담자들은 중간단계에서 더 많은 승인, 청취, 관계를 기대하고 선호하여 상담자와의 증가된 유대를 나타내고 있다.

성공집단과 비성공집단을 비교하여 상담진행에 따른 기대 변화를 살펴본 Tracey와 Dundon(1988)의 연구를 응용하여 성공적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Tracey와 Ray(1984)는 내담자의 변화가 선정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덜 성공적인 성과와 관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대와 성과를 관련지어 행한 연구가 부족한 이 시점에서 기대의 변화를 정해진 방향으로 유도하여 성공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좋은 경험적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대에 대한 단순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알아 내는 종단적 연구가 먼저 요구된다.

4. 이전 연구들의 문제점

상담에 대한 기대를 다룬 연구들이 지난 30년간 누적되어 왔고, 기대가 어느 정도로 상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 누적된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혼란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기대가 내담자의 만족도, 조기종료, 치료성과, 치료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섭렵하여 개관한 Duckro, Beal 및 George(1979)의 연구도 연구간의 불일치가 너무 많아 애매모호하다고 하였다. Hardin과 Subich(1985), Tinsley, Bowman 및 Ray(1988)등도 연구들간의 불일치가 많아 어떤 의미있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Duckro 등(1979)은 기대 차원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대의 정의 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밖에 기대와 선호는 위계적 관계가 있으나 이를 따로 연구하거나 혼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Hardin과 Subich(1985)는 각 연구마다 내담자의 기대가 서로 다른 정의와 측정도구에 의해 다루

어졌으며 많은 연구들이 비내담자 표집에서 얻은 결과를 보고 하였다고 하였다. 기대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체계적 개관연구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Tinsley, Bowman 및 Ray(1988)는 연구들이 사용한 기대조작에 대해 개관을 하였으나 방법론적 약점이 많아 일정한 결과를 얻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Tracey와 Dundon(1988)도 기대를 다른 문헌들이 기대의 정의와 조작화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정의와 측정의 혼란 및 방법론적 약점들을 살펴보겠다. 연구자들이 기대(expectation)-어떤 사건에 대한 예상(anticipation)-와 선호(preference)-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wish)-를 뚜렷이 구분하는데 실패했음을 쉽게 주목할 수 있다. Kelly(1955)의 성격과 심리치료 이론에서 사용이 되고, Apfelbaum(1958)의 역할 기대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사용된 기대는 어떤 사건(event)에 대한 예상이었다. 그러나 그 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대의 이러한 정의와 '기대'라는 말에 대한 대안적이고 경쟁적인 또 다른 해석에 그다지 주의를 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오늘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볼 것을 기대한다"하고 등을 두드리며 아들을 배웅하는 부모의 이러한 말에는 단순히 예상 혹은 예기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위의 예문에서 사용한 '기대'는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선호이다. 이 두 개념은 인지의 충분히 다른 면들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를 간과하여 피험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를 해석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예상으로서의 기대인지 선호로서의 기대인지 불분명하다.

Duckro등(1979)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상으로서의 기대와 선호로서의 기대, 둘 다를 동시에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Dreman과 Dolev(1976)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역할 기대와 선호간에 높은 상관점수를 얻어 두차원의 유사성을 나타내보이기도 하였지만 Tinsley와 Benton(1978)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항목을 가지고 '기대한다'와 '원한다'로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기대와 선호가 4가지 상담 절차들-경험많은 상담자를 만나고, 면담중에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을 알고, 심리점사를 받게되며, 면담외에 숙제를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기대보다 선호가 앞섰으며 전문성, 솔직성, 신뢰성, 치료성파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내담자들이 특별한 기대 뿐 아니라 상담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담자의 반응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선호를 지니고 있다는 Hoch(1955)의 지적처럼 기대와 선호는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여러 연구들은 통해 드러나고 있다. Devine과 Fernald(1973)의 연구에서는, 자기가 원하던 치료에 배당된 사람들이 무선으로 배당되거나 원하지 않던 치료에 배당된 사람들 보다 일반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이었음이 나타났다. 기대의 불일치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Tracey와 Dundon(1988)도 정서적 톤이 감안된 선호가 기대와 상호작용하는 모델인 양방향적(bidirectional)모델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기대와 비록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선호된 방향이라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내담자들은 자기들이 예상한 것 보다 더 선호한 방식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허락되어 유쾌하게 놀라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내담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도, 실제로 기대했던 대로도 행동할 수 없을 때 매우 불만족스러워 부정적 성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기대는 내담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바와 관련지어 해석되어야 한다.

기대의 정의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측정의 문제이다. 많은 연구들이 내담자의 주요 기대차원을 확인하고 그것의 영향을 밝히려 노력하였는데 그 때 마다 특정연구를 위해 고안된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연구들이 이런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정보를 보통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Duckro 등(1979)은 이 분야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결정적인 기대변인을 측정하는 데 단 1개의 문항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다. 이런 도구의 사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의미한 발견의 해석력을 감소시킨다. 더군다나 한 특정 개념을 여러 측정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 평형성이 의심스러우며,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한가지 개념들이 중복될 가능성 때문에 이들 문헌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 만큼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Hardin과 Subich(1985)는 대안으로 EAC(The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Tinsley et al., 1980)를 추천하면서 이 척도의 발달과 개념화를 다룬 연구와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을 소개하여 신뢰성,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EAC로 내담자와 비내담자표집의 반응을 비교하고 이 도구의 normative data base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론적 약점은 Tinsley, Bowman 및 Ray(1988)가 잘 요약하고 있다. 그들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세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들을 기대 조작조건에 무선허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집단간의 기대 조작후의 차이가 집단들의 최초 상태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둘째는 첫번째 문제를 피하려는 일부 연구자들이 행한 시도에서 발생한 것인데, 각 연구참여자의 기대가 기대 조작 이전에 측정되는 사전-사후설계를 사용한 것이다. 기대의 첫번째

조작이 실험조작의 효과에 반동적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응자에게 그들의 치료자가 지시적일 것인지, 매력적일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 지를 묻는 것은 반응자로 하여금 그런 문제에 민감하게 할 수 있다. 그후 기대를 조작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반응자의 증가된 민감성이 기대조작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는 치료과정이나 성과 혹은 둘 다에 관련시키려고 시도한 연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많은 연구들이 사후 조작검사(manipulation check)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험후 생긴 변화를 실험개입(즉, 기대조작)에 귀인시키려면 먼저 그 개입이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외에 그들은 8가지를 추가 하였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여기서는 5가지를 소개한다.

- (1)상담에 대한 기대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범위에 초점을 두었다. Tinsley(1984)는, 복잡한 인간행동은 전형적으로 다중적 경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기대를 상담에 도움을 청하는 그의 행동경향성이나 상담에서의 그의 행동에 관련시키려는 시도는 광범위한 내담자의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범위의 기대조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결과의 한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측정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은 행동의 전체 변량 중 매우 제한된 비율을 설명해 주는 변인들을 측정하고 있다.
- (2)문헌에 보고된 성공적인 기대조작 중 많은 것이 실험실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cKee와 Smouse(1983)는 학생들에게 실제로는 치료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가정된 치료자의 사진을 평정하게 하였다. 이같은 연구는 학생들이 치료자라고 명명된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과 내담자들이 실제 치료자를 보는 것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의심된다. 외적 타당도 부족이 반드시 연구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Mook, 1981),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외적 타당도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3) 연구자들이 기대조작의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예에서 조작효과는 조작 후 바로 평가되었다. 기대에서의 일시적 변화가 치료과정이나 치료성공에 중요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 않다. 일어난 기대변화가 일시적이라면 혹은 내담자의 기대가 접수면접 후에 현저한 변화를 겪는다면 초기 면접후에 내담자의 기대를 수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조작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조작된 혹은 일어난 기대변화의 영구성이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 (4) 상호작용효과도 거의 간과되어왔다. 다중기대 조작기법들이 사용되는 연구들에서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특별한 관심거리가 된다. 어떤 조작이나 조작들의 어떤 조합이 관찰된 효과를 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둘 다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보다 밀도 있게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 (5) 모든 관심사들의 기저에 놓인 문제는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AC척도를 개발하여 후속연구를 발표하고 있는 Tinsley 등 몇몇의 연구자들이 체계적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나 본 개관논문이 참고로 한 문헌의 저자들은 단일 논문에 그친 경

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약점을 보강한 연구를 단 하나의 연구로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기대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상담에 대한 기대는 다층적인 것으로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 상담성공에 대한 기대,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및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대한 기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대는 더 구체적인 기대들을 포함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닌지, 상담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상담자를 찾아가야 할런지 등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는 보다 전문교육배경을 가진 전문 상담자를 요구하며,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이 지속됨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그 상담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지표가 되기도 한다. 넷째, 기대에 관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행한 연구들이라도 그 연구들을 통합하기 어려운데, 이는 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나 연구대상이 동일하지 않으면 비교적 덜 엄격한 연구설계를 사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상담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몇가지 사실이 밝혀졌지만 미흡한 것은 내담자나 일반 사람들이 상담에 관해서 어떤 기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의 양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대의 양적 특성은 상담자나 상담소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상담자나 상담소의 전문적 활동을 준비하

는데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측의 조력추구행동을 이해하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미흡한 점은 상담의 주요 변인으로서의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이장호, 1986)가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기대가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된 것으로는 내담자 기대가 불일치되었을 때 불안을 많이 야기한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대에 따른 내담자나 상담자 언어반응유형을 살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상담자-내담자의 언어반응유형의 체계적 관찰을 포함한 상당히 복잡한 연구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내담자 기대의 인과적 특성보다 내담자 기대에 관한 기술적 자료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술적 자료는 결코 단순한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내담자 기대에 관한 원자료로서 보다 세련된 연구들의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 정신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일반 내담자들의 문제 해결을 조력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요즈음 상황에서, 대중들이 상담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상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지 등의 내담자 기대를 조사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미국 등지에서는 30여년간의 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내담자 기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이장호(1986).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Apfelbaum, D. (1958). *Dimensions of Transference*

in Psychotherap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postal, R. A. (1986). Comparison of counselors and non counselors with type of problem controlle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407-410.
- Bedner, R. L., & Parker, C.A.(1969). Client susceptibility to persuasion and counseling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 415-420.
- Bedner, R. L. (1970). Persuasibility and the power of belief.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 647-652.
- Begley, C. E., & Lieberman, L.R.(1970). Patient expectations of therapists' techniqu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112-116.
- Berzin, J. L. (1971). *Revision of Psychotherapy Expectancy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 Betz, N. E., & Shullman, S. L.(1979). Factors related to client return rate following intak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542-545.
- Bordin, E. S.(1955). The implications of client expectations for the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17-22.
- Borghi, J.(1968). Premature termination of psychotherapy and patient-therapist expectations. *Journal of Psychotherapy*, 22, 460-473.
- Cashdan, S.(1973). *Interactional Psychotherapy*. New York:Grune and Stratton.
- Carney, C. G., & Savity, C. J.(1980).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student needs and the services of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Differences that make a dif-

- 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97-604.
- Carney, C. G., Savity, C. J., & Weiskott, G. N. (1979). Student's evaluations of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nd their intentions to use its progra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242-249.
- Christensen, K. C., & Magoon, Y. M. (1974). Perceived hierarchy of help-giving sources for two categories of student proble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314.
- Clemes, S., & D'Andrea, V. (1965). Patients' anxiety as a function of expectation and degree of initial interview ambigu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397-404.
- Cundick, B. (1963). The relation of student and counselor expectations to rated counseling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62) *Dissertation Abstracts*, 23, 2983-2984.
- Devine, D. A., & Ternald, P. S. (1973). Outcome effects of receiving a preferred, randomly assigned, or non preferred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04-107.
- Dougherty, F., III. (1973). Patient-therapist matching: An empirical approach toward the improvement of psychotherapy outcome (Doctoral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197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3, 6707413.
- Dreman, S. B., & Dolev, A. (1976). Experiments for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571-574.
- Duckro, P., Beal, D., & George, C. (1979). Research on the effects of disconfirmed client role expectations in psychotherapy: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260-275.
- Duehn, W. D., & Proctor, E. K. (1977). Initial clinical interaction and premature discontinuance in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284-290.
- Fancher, R. E., & Gutkin, D. O. (1971). Attitudes toward science, insight therapy, and behavior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153-155.
- Feister, A. R. (1977). Clients' perceptions of therapists with high attrition r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954-955.
- Festinger, L. A.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rank, J. D. (1959). The Dynamics of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iatry*, 22, 17-39.
- Frank, J. D. (1968). The influence of patients' and therapists' expectations on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1, 349-356.
- Frank, J. D. (1973). *Persuasion and Healing: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herapy* (2n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elso, C. J., Brooks, L., & Karl, N. J. (1975). Perceptions of "counselors" and other helper: A consumer analysi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6, 287-292.
- Gelso, C. J., & Karl, N. J. (1974). Perceptions of "counselors" and other help-givers: What's in a Lab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43-2.

- Gelso, C. J., & Mckengie, J. D.(1973). Effect of information on students' perceptions of counseling and their willingness to seek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406-411.
- Getsinger, S. H., & Garfield, N. J.(1974). Male students' perceptions of counselors, guidance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7, 7-10.
- Goin, M., Yamamoto, Jo, & Silverman, J.(1965). Therapy congruent with class-linked expecta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133-137.
- Goldstein, A. P.(1960). therapist and client expectation of personality chang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 180-184. (b)
- Goldstein, A. P.(1960). Patient's expectancies and nonspecific therapy as a basis for spontaneous remi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 399-403. (a)
- Goldstein, A. P.(1962). Participant expectancies in psychotherapy, *Psychiatry*, 25, 72-79.
- Goldstein, A. P.(1962). *Therapist-Patient Expectancies in Psychotherapy*. New York:Macmillan.
- Goldstein, A. P., Heller, K., & Sechrest, L. B. (1966). *Psychotherapy and The Psychology of Behavior Change*. New York:Wiley.
- Goldstein, A. P., & Shipman, W. G.(1961) Patient expectancies, symptom reduction and aspects of the initial psychotherapeutic inter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129-133.
- Greens on, R. R.(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ulas, I.(1974). Client-therapist congruence in prognostic and role expectations as related to client's improvement in short-term psycho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197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e*, 35, 243013.
- Gustad, J. W.,(1953). Definition of counseling. In r. Berdie ed., *Roles and Relationships in Counseling*. Minneapolis:University of Minesota press.
- Hardin, S. I., & Subich, L. M.(1985). A Methodological note: Do students expect what clients do?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31-134.
- Hardin, S. I., Subich, L. M., and Holveg, J. M. (1988). Expectancies for counseling in relation to premature ter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7-40.
- Heider, J.(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Wiley.
- Heilbrum, A. B.(1970). Toward resolution of the dependency-premature termination paradox for female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382-386.
- Heilbrum, A. B.(1972). Effects of briefing upon client satisfaction with the initial counseling conta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50-46.
- Heine, R. W., & Trossman, H.(1960) Initial expectations of the doctor-patient interaction as a factor in continuance in psychotherapy. *Psychiatry*, 23, 275-278.
- Helweg, G. C., & Gaines, L. S.(1977). Subject

-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for different approaches to psychotherapy: A multivariat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963-964.
- Heppner, P. P., & Heesacker, M. (1983). Perceived counselor characteristics, client expectations, and client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1-39.
- Hoch, P. H. (1955). Aims and limitations o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2, 321-326.
- Holen, M. C., & Kinsey, W. M. (1975). Preferences for three theoretically derived counseling approach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21-23.
- Horenstein, D. (1974). The effects of confirmation or disconfirmation of client expectations upon subsequent psycho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7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 62111B.
- Kazdin, A. E., & Kranse, R. (1983). The Impact of variations in treatment rationales on expectancies for therapeutic change. *Behavior Therapy*, 14, 657-671.
- Kadzin, A. E., & Wilcoxon, L. A. (1976). Systematic desensitization and nonspecific treatment effects: A methodological evaluation. *Psychological Bulletin*, 83, 729-758.
- Kell, B. L., & Mueller, W. J. (1966). *Impact and Change: A study of counseling relationship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rause, M. S. (1967). Clients' expectations of the value of treatment. *Mental Hygiene*, 51, 359-365.
- Krause, M. S., Fitzsimanon, M., & Wolf, N. (1969). Focusing of the client's expectations of treatment. *Psychological Reports*, 24, 973-974.
- Lennard, H. L., & Bernstein, A. (1960). *The Anatomy of Psychotherapy: Systems of Communication and Expec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oor, M. (1965). Client perceptions of therapist: A study of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46-149.
- MoGlynn, F. D., Mealiea, W. L., & Newas, M. M. (1969). Systematic desensitization of snake-avoidance under two conditions of suggestion. *Psychological Reports*, 25, 220-222.
- McKee, K., & Smouse, A. K. (1983). Clients' perceptions of counselor expertness, attractiveness, and counselor status and weigh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32-338.
- Mook, D. G. (1983). In defense of external invalidity. *American Psychologist*, 38, 379-387.
- Overall, B., & Aronson, H. (1963). Expectations of psychotherapy in patients of lower socioeconomic cla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3, 421-430.
- Parham, W. D., & Tinsley, H. E. A. (1980). What are friends for? students' expectations of the friendship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24-527.

- Patterson, C. H.(1958). Client expectation and social conditioning.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37, 136-138.
- Ricker -Ovsiankina, M. A., Berzin, J. I., Geller, J. D., & Rogers, g. W.(1971). Patient's role expectancies in psychotherapy: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approach. *Psychotherapy: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8, 124-126.
- Robinson, F. P.(1956). *Principles and Procedure in Student Counseling*. New York:Harper and Row.
- Rust, R. E., & David, J. S.(1961). The 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Mental Hygiene*, 45, 247-257.
- Sandler, W.(1975). Patient-therapist dissimilarity of role expectation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of psychotherapy with student therapis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6111-6112.
- Shapiro, A. K., & Morris, L. A.(1978). The placebo effect in medical and psychological therapies. In S. L. Garfield and A. E. Be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2nd ed.)*. New York: Wiley.
- Snyder, J. F., Hill, C. E., & Derksen, J. P.(1972). Why some students do not use university counseling facil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 263-268.
- Strong, S. R.(1968). Counseling:An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215-224.
- Strong, S. R., & Claiborn, C. D.(1982). *Change through Interaction*. New York:Wiley.
- Strong, S. R., Hendel, D. D., & Bratton, J.(1971). College students' views of Campus help-givers: Counselors, advisers, and psychiatr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234-238.
- Subich, L. M. & Cursol, D. H.(1985). Counseling expectations of clients and nonclients for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45-251.
- Tinsley, H. E. A., Aubin T. M., & Brown, M. T. (1982). College students' help-seeking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523-533.
- Tinsley, H. E. A., Bowman, S. L., & Ray, S. B. (1988). Manipulation of expectancies about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Review and analysis of expectancy manipulation strategies and res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99-108.
- Tinsley, H. E. A., Brown, M. T., Aubin, T. M., & Lucek, J.(1984). Relation Between expectancies for a helping relationship and tendency to seek help from a campus help provid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49-160.
- Tinsley, H. E. A., & Harris, D. J.(1976). Client expect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173-177.
- Tinsley, H. E. A., Workman, K. R., & Kass, R. A.(1980). Factor analysis of the domain of client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61-570.
- Titchner, E. B.(1909). *Lectures on the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e Thought Process*. New York:Macmillan.

- Tolman, E. C.,(1932). *Purposive Behavior in Animals and Men*. New York:Appleton-Century-Crofts.
- Tracey, I. J. (1986). Interactional correlates of premature termin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784-788.
- Tracey, T. J., & Dundon, M.(1988). Role anticipations and preferences over the cour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14.
- Tracey, T. J., Heck, E. J., & Lichtenberg, J. W. (1981). Role expectations and complementary/symmetrical therapeutic relationships. *Psychotherapy: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8, 338-344.
- Tracey, T. J., & Ray, P. B.(1924). The stages of successful time limited counseling:An interactional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3-27.
- Vail, A. F.(1974). Dropout from psychotherapy as related to patient-therapist discrepancies,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 in race and sex.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s*, 35, 245213.
- Volksy, T., Magoon, T., Norman, W., & Hoyt, D. (1965). *The outcom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Theory and Research*.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armen, R. E.(1960). Differential perceptions of counseling ro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 269-274.
- Warmen, R. E.(1961). The counseling role of college and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31-238.
- Wilkins, W.(1973) Expectancy of therapeutic gain:An Empirical and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69-77.
- Wilkins, W.(1986). Invalid evidence for expectancies as causes:comment on Kirsch. *American Psychologist*, 41, 1387-1389.
- Wollersheim, J. P., McFall, M. E., Hamilton, S. B., Hickey, C. S., and Bordewick, M. C. (1980). Effects of treatment rationale and problem severity on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problems and counseling approach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225-231.
- Yanico, b. J., & Hardin, S. I.(1985). Relations of type of problem and expectations of counsel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students gender preference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97-205.
- Yuen, R. K., & Tinsley, H. E. A.(1981). International and American students' expectancie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66-69.
- Ziemelis, A.(1974). Effects of client preference and expectancy upon the initial inter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3-30.

〈ABSTRACT〉

A Review of Client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Myoung Ja Keum Chang Ho Lee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s research reports on the client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The four different aspects of expectation researches overviewed were the expectation dimension, the effect of client expectation on counseling, the change in client expectation over the course of counseling, and some shortcomings of the expectation researches overviewe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is multiple, and consists of the expectation of counseling process, counseling outcome, counselor's role, client's role, and counselor-client relationship.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influences help-and helper-seeking behavior. That is, clients with personal problem seek a professional counselor, and have expectation of the counselor's expertness. Many studies examine the assumption that disconfirmation of client expectation has a negative influence in early counseling, but the research results do not seem to be consistent. There are few studies that examine the effect of expectation on the final outcome of counseling. But client expectation changes over the course of counseling, and this change is related to the final outcome. Due to such methodological shortcomings as the ambiguous definition of the term 'expectation', inappropriate analysis method, unvalidated tools, most studies on the client expectation do not converge on the conclusive results. Finally,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in this paper.